여수 참다랑어 양식 도전 나섰다

市 엑스포 체험어장 연계, 안도리 해상에 추진

'길들이기' 핵심 기술…일본도 30년만에야 성공

여수에서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 시험 양식이 시도된다.

여수시는 참다랑어 양식을 내년 해양수산 주요 사업분야로 확정하고 25억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참다랑어 양식은 민간 수산업체가 여수시 남면 안도리 해상 39ha 해상에 국비와 자부담 등 5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여수시가 참다랑어 양식을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확정한 것은 기존 양식어류의 경쟁력 약화로 침체를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일부 양식어종은 생산이 소비를 웃돌고 있는데다 저가의 외국산 수입이 늘면서 채산성 악화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참다랑어 양식단지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체험어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어떻게 양식하나=바다에서 어린 참다랑어를 잡아 양식장에 넣어 기르는 단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참다랑어는 주변 환경에 민감해 폐사량이 높기 때문에 어린 참다랑어를 길들이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또 낚시로 어린 참다랑어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

▲현황=참다랑어 양식의 선두주자는 일본이다. 일본 긴키대 연구팀은 30여년간의 시행착오끝에 양식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인공부화를 이용한 상품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통영시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양식에 착수했다. 제주에서도 육상에서의 양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참다랑어=참치(혼마구로) 로도 불리는 고등어과 어종으로 한마리에 수천만원을 훗가하기도 한다.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DHA가 다량 함유돼 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물론 치매 예방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인들의 장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도로변 튤립 활짝 해맞이 명소인 향일암으로 향하는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두문마을 도로변에 튤립 수천 송이가 만개했다. 돌산읍 사무소와 죽포 출장소 직원들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초 부터 향일암 도로변 일대에 튤립을 심고 가꿨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양상의 독자 설립, 이번엔 법률 논쟁

순천·광양상의 "정관 따라 관할구역 변경절차 밟아야"

설립 준비위 "상공회의소법이 우선…정관 효력 없어"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 설립을 둘러싸고 법률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광양상의를 독자 설립하기 위해서는 순천·광양상의 정관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관할구역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광양상의 설립 준비위원회는 "상공회의소법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규정한 만큼 정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순천·광양상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순천·광양상의는 순천시와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등 2개 시 2개군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며 "광양상의를 독자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광양상의는 "의원총회에서 관할구역 변경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순천·광양상의는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광양상의 설립 준비위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상의 설립 준비위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도록 돼 있다"며 "정관은 상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광양상의의 독자 설립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도지사 승인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광양상의 설립 준비위는 "순천·광양상의 전체 회비 9억원 중 6억원을 납부하고, 전체 회원사 50여개중 30여개에 이르는 광양 업체들의 독자 상의 설립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며 "광양상의가 독자 설립되면 지역발전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1차 발기인대회를 가진 광양상의 설립 준비위는 오는 25일 2차 발기인대회와 다음달 창립총회를 각각 가진 뒤 광양상의 독자 설립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천년 전통 '지리산 남악제' 18일 개막

21일까지 화엄사 지구·서시천 일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천년 전통의 '제 64회 지리산 남악제'와 구례 군민의 날 행사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화엄사 시설지구 및 서시천 체육공원 일대원에서 열린다.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지리산 남악제'는 문화예술 위주의 다채로운 40여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날인 18일에는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를 비롯해 남악 서예작품전시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구례향제줄풍류 공연 등이 열리며 구례 출신 동편제 판소리의 거장인 송만갑·유성준·박봉술 명창을 추모하는 추모제와 추모공연도 마련된다.

19일에는 좌도농악 공연, 한국무용, 각설이 품바 경연을 비롯해 전남도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가 실내체육관 등지에서 열린다.

20일에는 남악제례와 군민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잔수농악 공연, 지리산녀 선발대회, 장죽전 헌공다례, 남악제 주부가요 열창 등이 펼쳐진다. 21일에는 군민화합을 위한 씨름, 노인게이트볼, 족구, 윷놀이 등 체육행사가 열린다.

한편 '지리산 남악제' 는 신라 선덕왕 때부터 지리산 노고단에서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한 데서 비롯됐으며 일제 강점기에 중단됐다가 광복 후 재개돼 매년 곡우절에 지리산 일대의 영약으로 이름난 거자 약수로 제를 올리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소외 주민들과 함께 해요"

'순천시청 희망봉사단' 독거노인 찾아 봉사활동

순천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순천시청 희망봉사단'이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청 희망봉사단원 30여명은 지난 12일 향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5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 생활이 어려워 교복을 구입하지 못한 학생에게 새 교복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2명에게는 용돈도 전달했다.

순천시청 희망봉사단원은 지난 2001년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 84명과 민간인 전문도배 봉사단 3명으로 결성돼 현재까지 지역내 어려운 불우이웃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 어린이날 등 각종 축제장의 행사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태안 기름 유출 현장에서 제거 작업도 벌였다.

봉사단원인 김용찬씨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일이나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며 "서로 돕는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신텍·영산重 율촌 제1산단 입주

650여명 고용창출 효과

㈜신텍과 ㈜영산중공업이 율촌 제1산단에 입주한다.

신텍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로 4만5천㎡부지에 142억원을 투자해 아랍권과 유럽시장에 수출한다.

해양플랜트와 크레인을 제작하는 영산중공업은 부지 3만6천㎡에 170억원을 투자한다.

두 기업이 올해 안에 율촌산단에 입주하면 6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들 업체 입주는 광양만권 철강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뿐 아니라 연관산업 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州日報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본부장	김동호(구례 겸임)
	지광현 차장(보성 〃)
고흥주재	주각중 부국장
여수주재	박양규 부장
순천주재	김진수 차장
광양주재	김춘호 차장

GS 칼텍스 '어린이 안전 지킴이' 앞장

우범지대 CCTV 설치비 5천만원 기부

여수시와 GS 칼텍스 여수공장이 우범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여수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시의회의 심의가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에 CCTV 설치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학교 주변과 공원, 놀이터 등 43개소에 100여대의 CCTV가 설치된다.

GS 칼텍스 여수공장도 15일 CCTV 설치 비용으로 5천만원을 여수경찰서에 기부했다.

여수경찰서는 GS 칼텍스가 기증한 돈으로 범죄 취약지역 10개소에 30~4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여수시와 GS칼텍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큰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